

전성기 다시 왔나... 최형우 '노장 파워'

41세 최고령야수... 400홈런 달성 팀 최다 38경기 출전 강철 체력 타율·장타율·최다 안타 팀 1위 내년 세 번째 FA 계약할 가능성

프로야구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주축 타자들의 릴레이 부상으로 시름하고 있다.



시즌 초반 김도영, 김선빈, 박찬호 등 내야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복귀했고 최근엔 주전 외야수 나성범이 종아리 근육 부상,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허리 통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탈소됐다.

이런 가운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선수가 있다.

1983년 12월16일생 최형우(41)가 주인공이다.

올 시즌 KBO리그 야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최형우는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14일 현재 팀 내 최다 경기인 38경기 출전에 타율 0.298(131타수 39안타), 6홈런, 23타점, 장타율 0.542, 출루율 0.392, OPS(장타율+출루율) 0.934를 기록했다.

타율, 최다 안타, 장타율, 출루율, OPS 모두 팀 내 1위이고 홈런과 타점은 위즈덤에 이은 2위다.

리그 전체에서도 장타율 4위, OPS 5위를 달리는 등 정상급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형우는 올 시즌 4경기에서 좌익수로 선발 출전하는 등 수비에서도 힘을 보탠다.



KIA 최형우가 타율·최다 안타·장타율·출루율·OPS 모두 팀 내 1위를 기록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최형우가 4월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 6회 말에서 타격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SSG 랜더스와 더블헤더 두 경기에 모두 출전했고 1차전에선 좌익수 출전을 자청하기도 했다.

또 5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선 4타수 4안타(1홈런)를 쳤고 이 경기에서 역대 4번째이자 최고령 400홈런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현재 분위기라면 생애 세 번째 자유계약선수(FA) 계약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형우는 2016년 말 KIA와 4년간 총액 100억 원에 생애 첫 FA 계약을 맺었고 2020년 12월 KIA와 계약기간 3년 총액 47억 원에 두 번째 FA 계약서에 사인했다.

꾸준히 활약한 최형우는 지난해 1월 계약기간 1+1년 총액 22억 원에 KIA와 다시 다년 계약을 했다.

지난 시즌 116경기 타율 0.280, 22홈런, 109타점으로 KIA의 통합 우승을 이끈 최형우는 무난하게 옵션 계약을 자동 연장했다.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인 최형우는 욕심을 내려놓고 2025시즌을 시작했다.

개막 전엔 은퇴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개막을 앞두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올 시즌을 마치고 은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엄살'로 끝날 분위기다. 최형우는 여전히 녹슬지 않은 경기력으로 KBO리그를 지배하고 있다. 큰 부상 없이 현재 성적을 이어간다면 다시 한번 FA 계약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 SSG 구단주 보좌역이 가진 KBO리그 타자 최고령 출장(42세 2개월 17일), 안타(2024년·42세 1개월 26일), 홈런(2204년·42세 22일) 기록 경신도 가능하다.

클루세브스키마저... 유로파리그 결승 코앞 토트넘 부상 '빨간불'



17년 만의 우승 한풀이를 버리는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부상 선수들이 많아 고민인 상황에서 주축 미드필더 데얀 클루세브스키마저 무릎 수술을 받아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뛸 수 없게 됐다. 토트넘은 15일(이하 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에 "지난 주말 크리스털 팰리스와 경기에서 클루세브스키가 오른쪽 슬개골을 다쳤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토트넘 홋스퍼의 미드 클루세브스키가 5월11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부상을 당한 후 교체되고 있다.

클루세브스키는 발 부상에서 회복한 토트넘 동료 손흥민의 복귀전이기도 했던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와 2024/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6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가 다쳐 교체됐다. 결국 수술을 받게 되면서 클루세브스키는 22일 스페인 빌바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치르는 2024/25 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동안 무관해 그치고 있는 유로파리그는 토트넘이 올 시즌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대회다.

'11경기 6골' 울산 에릭... "K리그 적응 완료"



프로축구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의 최전방 책임지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에릭(사진)의 기세가 매섭다.



"득점왕 목표로 훈련 중... 중요한 건 리그 우승"

에릭은 14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 인천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 후반 23분 허을과 교체로 그라운드에 들어간 지 12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전현의 프리킥 크로스를 헤딩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든 에릭은 2분 뒤에는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뒷강킥 침투를

선보이며 3-0으로 달아나는 김민우의 세기 골을 끌어냈다.

이날 득점은 지난 3월 중순 입단한 에릭이 울산 유니폼을 입고 치른 11번째 경기에서 나온 6번째 골이다. 최근 공식전 7경기에서 5골을 몰아쳤다.

김관곤 울산 감독은 이날 인천전 직후 "이제 선수들과 호흡도 맞는 것 같고 K리그의 경기 속도에도 적응한 것 같다. 득점왕에 오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의 이 같은 격려를 전해 들은 에릭은 "나도 득점왕을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승리다.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해 보탬이 되고 싶다"며 "우리 목표는 K리그 우승"이라고 덧붙였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의 핵심은 예방입니다!